

서점은 지역의 도서관,

## 문화공간 역할 병행해야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마켓이나숍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도서관,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문화적인 인프라와 지식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서점 주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독서운동가의 역할까지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독서문화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중대형서점 계룡문고 대표 이동선 씨(41)는 이 지역에서는 서점 대표보다는 독서운동가로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이메일 아이디(ID)가 ‘bookdad’인데 이 아이디를 통해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책 읽어주는 아빠의 일기’와 어린이 독서지도에 유익한 각종 정보들을 보낸다. 직접 외동 딸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느낀 소회를 진솔하게 표현한 그의 글들은 읽는 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절로 깨닫게 한다(그는 7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그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서운동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 바로 ‘책 읽어주는 아빠’, ‘책 읽어주는 엄마’다. 이들 모임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옹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대전지역의 어른들이 모여서 만든 소박한 독서문화 운동 공동체이다. 그는 이 모임의 산파역을 맡았다.

“모임을 시작한 지는 2년 됐어요. 저는 아빠니까 주로 ‘책 읽어주는 아빠’ 모임에 참여하죠. ‘책 읽어주는 엄마’ 모임에는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책 읽어주는 아빠’ 모임 같은 경우 현재 열두 분의 회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회원 중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회사원도 있어요.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아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동선 대표가 독서운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서점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1991년 (사)어린이도서연구회와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서점 매장을 찾는 독자들을 상대하다가 이들에게 책과 독서문화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우리나라의 독서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우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와 교류를 하고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독서문화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이래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점 직원으로서, 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동선 대표는 장형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문고에서 매장, 기획실, 홍보실 등을 두루 거치며 착실히 서점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뒤 1996년, 매장 면적 1,000여 평으로 대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계룡문고를 인수해 오픈한다. 그가 계룡문고를 오픈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떻게 하면 서점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심 끝에 매장 한 칸에 30여 평 규모의 작지 않은 북카페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곳에 다양한 책 관련 문화행사를 유치한다. 어린이책, 종이접기, 시화전,

“...책 읽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정서적인 근거리에서 서점과 도서관을 놓이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를 터득하게 돼요. 독서는 어린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독서운동의 핵심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만화, 쿼트 등의 전시회를 열고 화제의 저자들을 초청해 독자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 그것. 지금까지 이곳 북카페를 다녀간 저자들만도 어린이책 작가 황선미, 김향이, 소설가 신경숙, 은희경, 시인 안도현, 만화가 박광수 등 여럿이다.

그는 아이들 교육에 독서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아이들 교육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책 한권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책 읽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정서적인 근거리에서 서점과 도서관을 놓이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를 터득하게 돼요. 독서는 어린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독서운동의 핵심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계룡문고 매장 곳곳에는 그가 여러 책과 잡지, 신문 등에서 발췌한 독서관련 정보가 다량으로 인쇄돼 비치되어 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 그들 모임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는 이동선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독자들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서점 대표라는 직책이 그가 벌이는 독서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했던 것이다. 책을 팔기 위해 독서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도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마케팅도 사리를 위한 소로 폄하되기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독서운동에 꾸준히 헌신하자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의

취지를 이해하고 돕겠다고 나서시는 분들도 많죠.”

그는 문화운동은 정부나 국가 같은 관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아래로부터의 요구,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출판 불황도 시민단체, 서점단체, 출판단체들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면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 나설 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같은 경우, 출판시장에 불황이 오면 출판·서점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가 정부, 국가, 제도권 눈치만 보고의 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먼저 문화적인 기반을 닦는 일부터 해야 해요. 그건 바로 서점업자, 출판업자, 시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이는 모든 역사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그 말의 숨은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책 읽어주는 아빠’ 모임을 질적으로 내실 있게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외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허장성세보다는 알찬 내용이 있는 모임으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다. 그는 독서운동 모임들도 압력단체가 되어 실제로 독서 및 도서관 정책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책 읽어주는 아빠’ 모임은 지난 지자체 선거 중 대전 지역 구청장 후보들의 도서관 정책을 검토·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비전 있는 정책을 낸 후보를 밀었다고 한다. 그 결과 도서관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액되는 성과도 올렸다고 했다. 바야흐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움짚하면서 의미 있는 싹을 터뜨리는 순간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